■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 한 달' 지도 점검 현장

기재 의무사항 싸고 곳곳 '실랑이'

업주들 "너무 복잡 … 누구 위한 제도냐"

단속반 "소비자들 안심하고 먹게 해야"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한 달을 맞아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농관원)이 22일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섰다. 단속반은 지도점검에 과정에서 거래내역서 작성 방법과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에 대해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업주들은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복잡한 것을 왜 하느냐, 누구를 위한 제도냐?"라며 반발했다.

광주일보는 농관원 원산지 기동단속팀 여정균(47)·장천식(33)씨 등 2명과 함께 계도현장을 취재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 광주시 북구 각화동 J식육판매도매점. 단속반은 맨 먼저 진열장에 놓인 포장지 겉표면을 확인했다. 쇠고기가 담긴 포장지에는 포장일자와 도축일자, 개체식별번호가 적혀 있었다. 여 반장이 도매점 여주인에게 "사전 교육을 잘 받았는지, 잘 지키고 있네요"라고 말한 뒤 쇠고기 거래명세서를 요구했다.

여주인은 거래일자·식육 종류·물량·원산지·부위명칭·등급·개체식별번호 등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꺼내 보여줬다. 확인 결과 일치했다. 여주인은 "쇠고기의 경우 15일 가량 숙성시켜 파는 부위도 있는데,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겉표지에 적힌 도축일자와 포장일자만 보고 '도축한 지 너무 오래된 고기'라며 안 사가는 일도 많다"고 항의했다.

단속반이 "도축일자 기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여주인은 "며칠 전 지도·점검 나온 구청 직원이 의무사항이라고 말해 적어놨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며 따져 물었다.

같은 날 오후 2시20분 북구 각화동 H고기백화점. 단속반이 진열장에 놓인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부착 여부를 확인한 뒤 도축증명서와 개체식별번호를 번갈아 점검한 결과 일치했다. 주인 이성실(39)씨에게 애로사항을 물었다. 이씨는 "직원이 7명인데, 손님들이 많이 몰릴 경우 이 직원 저 직원이 팔다 남은 고기가 서로 섞일 가능성도 있다. 아예 처리·보관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려는 도매점도 있다"며 "팔다 남은 쇠고기 처리방법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단속반은 등심·안심·갈비·채끝·양지 등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만 따로 붙이면 섞어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나머지 부위는 같은 등급이면 섞어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2일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도점검에 나선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소속 직원 2명이 광주시 북구 각화동 한 식육판매점에서 주인에게 거래내역서 작성과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편, 농관원 원산지기동단속팀은 다음달 31일까지 광주시내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체를 상대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9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장 비서관 구속

억대 수뢰 시인 … 검찰, 2억 행방 추적

광주시가 추진 중인 '유-페이먼트'(U-Payment)' 사업 과정에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시장의 비서관인 염모(39)씨가 검찰에 구속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염씨에게 억대의 돈을 건넨 IT업체 전 대표가 전날 구속된데 이어 염씨가 이날 뇌물을 받은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돈의 흐름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22일 '유-페이먼트' 사업추진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염씨를 구속했다.

염씨는 지난 2월께 '유-페이먼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주관사인 G업체 전 대표 하모(45)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전날 구속된 하씨를 상대로 뇌물 전달 명목 및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뇌물 전달자인 또 다른 하모씨와 광주 모 대학교수 C씨 등을 통해 건네진 2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염씨는 그동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돈을 받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염씨는 또 "1억원을 받아 비서실 여직원의 원룸 마련과 승용차 구입 등에 썼으며, 제3자에게 건넨 돈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과정에서 소위 '윗선'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돈의 정확한 흐름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뇌물 혐의를 포착한 2억원과 염씨가 받았다고 주장한 1억원을 감안하면 1억원 가량의 돈의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염씨가 현직 시장의 비서관인 데다 시 발주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5급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점 등에서 허위자백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페이먼트' 사업 주관사 대표가 초급 간부인 염씨에게 억대의 뇌물을 준 정확한 동기와 정황 등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교수 신분인 C씨가 하씨로부터 받은 돈을 염씨에게 직접 건넨 과정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시 비서실 직원 3명 전원 사표

광주시는 22일 '유-페이먼트' 사업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에 구속된 시청 비서실 염모(39) 비서관 사건과 관련 "김범남 비서실장 등 비서실 직원 3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염 비서관과 모 여비서 등 2명은 계약 해지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 염 비서관 개인비리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비서실장 등 비서실 직원들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게임중독' 모친 살해 20대 체포

전북 익산경찰은 22일 게임중독 등으로 "가정에 소홀하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최모(21)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익산시 황등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어머니 유모(41)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새벽 2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게임중독에 빠진 어머니가 본 척도 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금 체불에 사장 차 훔쳐타고 도주

쌍나팔

○…광주서부경찰은 22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자 업체 사장의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이모(57)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8시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김모(40)씨의 1t 화물차(시가 600만원)를 몰래 타고 간 혐의.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1년 전 김씨의 조경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제때 받지 못한 임금 400만원을 받으러 김씨를 찾아갔는데, 경찰에서 "김씨가 임금을 주지 않고 피하자 화가 나 보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차량을 훔쳐 타고 갔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장 자해사건 연루 기자 구속

순천경찰, 공갈 등 혐의

순천 초등학교장 자해 사건을 수사 중인 순천경찰은 22일 "아들의 혼사를 망쳤다"며 교장에게 돈을 뜯어낸 모 일간지 기자 A(60)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순천시 한 커피숍에서 모 초등학교 교장 B씨에게 "(B씨가) 함께 근무하는 교사이자 아들의 여자친구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도 이 사실을 감췄다"고 협박해 2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여교사 C씨에게 B교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털어놓는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아들은 C씨와 한 달여간 교제하다 B교장과의 관계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의 혼사를 망친)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광주·전남 신종플루 환자 14명으로

24시간 비상 체제 … 치료 병원 41곳 지정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지역 신종 플루 환자가 14명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자 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를 가동했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종 플루 환자는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12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전남 환자 11명은 완치돼 퇴원했으며, 1명은 현재 치료 거점병원인 국립 목포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부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중학생 박모군이 새롭게 확진 환자로 확인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부모와 미국에 다녀온 1살짜리 영아가 신종 플루 증상을 보여 영·유아 전문병원인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최종판명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태국을 다녀온 뒤 신종 플루 의심 증상을 보였던 영암의 한 복지단체 소속 20여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자택격리가 해제됐다.

현재 광주지역 치료거점 병원은 전남대병원 등 14개소로 270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남은 국립 목포병원 등 27개소 483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